

보건복지동향

(2006. 9. 21 ~ 2006. 10.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장례식장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금번 의료법 개정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
- 한편,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병원학교 개교

-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는 정서 및 행동장애, 발달 및 자폐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소아청소년의 치유적 대안학교 교육을 위하여 병원학교 “참다울학교”를 개설하였다.

- 국립서울병원 병원학교는 수도권 최초로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의 새로운 치료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구축해 나갈 치유적 대안학교이다.
 - “참다울학교”는 서울시 성동교육청 지정 병원학교로서, 대안학교 교육수업을 제공하여 심신의 치유와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증진하고자 설립되었다.
 - “참다울”은 “다함께 사는 참다운 우리”라는 뜻으로 “참되다”의 의미의 “참”과 “다함께 사는 우리”라는 의미의 “다울”이 어우러진 순우리말이다.
- 근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제8호 신설 (2005년 3월 24일 개정, 2005년 9월 25일 시행) 관련법령과 특수교육대상자 법령(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지정의 병원학교

■ 아동 옴부즈퍼슨, 아동권리보호의 첨병역할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6년 10월 24일 15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 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등 16명의 아동 옴부즈퍼슨(OmbudsPersons)과 9명의 옴부즈키드(OmbudsKids)를 각각 위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상황을 점검할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 이번 옴부즈퍼슨 위촉과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의 발족은 출산인구 감소 등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학대, 폭력 등으로부터의 적극적 아동보호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적 의지를 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아동 옴부즈퍼슨(OmbudsPersons)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16명을 위촉하였으며 이들은 2008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 친화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아동단체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12~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부즈키드(OmbudsKids) 9명도 함께 위촉하였다(붙임 “옴부즈퍼슨 및 키드” 명단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설치되는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모니터링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향후 상설 독립기구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분야정보수집 (아동 관련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권리 정책제언 등
-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지원, 아동권리 홍보 및 정보 개발·보급
- ※ 아동에게 친근하고 쉬운 방식의 차별적 홍보 및 정보 보급기법 개발 필요
- 한편,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개소식 축사에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증가 이외에도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법률안 전문은 10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법률안 관련 공청회는 11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법률안에 관한 연구자료는 블로그 (blog.naver.com/khis_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요실금 수술 보험적용 엄격해진다

-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 11월부터 요실금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시술확산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요실금 시술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만 요실금 수술에 470억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되어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 및 이에 따른 환자 건강 위해와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실금 수술시 소요되는 치료재료의 가격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실제 진료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태 및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 금년 2/4 분기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에 대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년 11월과 12월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

고,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OECD 국가 평균 연금자산 규모 GDP 대비 87.6%

- 최근 OECD는 30개 회원국의 연금자산(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규모가 2005년에 17조 9천억 달러이며 2001년부터 연평균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 중 미국이 12조 3천억 달러로 전체 OECD 국가 연금자산의 68.9%를 차지했으며, 영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OECD 국가 연금자산 총액의 90%를 차지했다.
- OECD 국가의 GDP 대비 연금자산의 규모는 2002년 75.5%로 낮아졌으나, 전세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2005년 87.6%로 증가했다.
- GDP 대비 연금자산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124.9%), 아이스란드(123.2%), 스위스(117.4%) 등 100% 이상인 국가가 3개국, 50% 이상인 국가가 6개국 등이며, 한국은 1.9%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OECD 연금자산 통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금(pension reserve funds)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한 총연금자산은 미국(144.2%), 네덜란드(124.9%), 노르웨이(80.3%), 핀란드(71.4%), 아일랜드(63.2%), 일본(60.9%) 순이라고 밝혔다.
- 한국의 GDP 대비 총 연금자산은 OECD 평균 86.7%에 크게 못 미치는 19.5%(국민연금 17.6%, 기타 1.9%)로 연금제도 미성숙* 등 고령화를 대비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184조원('06.9월말 현재)인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도 유지시 2035년 최대 1,715조원까지 적립되며, GDP 대비 비중은 2025년에 48.7%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근 유시민 장관이 제안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기금은 2038년에 3,719조원(GDP 대비 78.6%)이 되고 퇴직연금 적립 예상액 1,462조원 등 총 연금자산은 5,181조원(GDP 대비 10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해외투자기관과 전략적 제휴 추진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해외 투자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민연금기금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 자본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 중기자산배분계획 수립을 통해 *채권위주의 기금운용에서 *해외 및 대체투자의 확대 등 투자다변화를 추진 중이나, 운용전략과 국제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 * 채권비중 : 87%,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 10%
- 이에, 국제 자산운용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국제기구 및 해외 우수 연기금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국제기구: 세계은행, 해외연기금: 캐나다 CDP, 네덜란드 ABP, 미국 CalPERS 등
 - 전략적제휴로 투자자산의 최적 포트폴리오 도출 등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기금운용체계·투자정책 등의 기금운용정책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며,
 - 리스크관리와 운영지원시스템, 그리고 자산별 선진운용기법을 습득해 나갈 예정이다.
-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금년에는 해외연기금, 해외운용사 및 세계은행 등과 공동투자,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 내년부터 2~5년간 상호 파견연수, 공동 워크샵·세미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러한 해외 연기금과의 전략적 제휴는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과 수익성 제고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 ■ 유명상표, 약품성분명칭 모방사례 많아

- 치열한 경쟁으로 상품간 차별화가 퇴색되면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중심의 경영을 핵심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제약업계는 손쉬운 방식으로 상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경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국내 제약업체가 출원, 등록된 상표의 선택방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로 유명상표나 약품성분명을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브랜드가 많았는데
 - 예를 들면,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비아그라(VIAGRA)'가 유명해지자 세우그라, 노상서그라, 여보그라, BIG-GRA 등 '그라(GRA)'와 결합한 표장을 줄줄이 출원한 바 있고, 이 가운데 JOYGRA, 롱그라, 일나그라, 박달그라 등은 이미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명 코엔자임 큐텐(Coenzyme Q10)이 일반인에게 인기를 끌자, EnterQ10, InnoQ10, 헬씨큐텐, 헬쓰큐텐, 프로큐텐 등 큐텐(Q10)을 포함하는 표장을 2006년에만 44건이나 출원하였고, 큐텐, BQ10, 유비큐텐, 씨큐텐캡슐, 코큐텐, 코엔큐텐 등은 이미 등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외에도 약품의 사용처를 표장에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아토피(atopy) 치료

약제에는 아토피인, 아토피관, 아토피원, 아토피웬, 아토피웰, 아토피프리 등과 같이 아토피(ato)를, 혈액관련 약제에는 헤모텐, 헤모틱, 헤모콧, 헤모젠, 헤몬, 헤모큐 등 헤모(Hemo)를 표장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약품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쉽게 이익을 보려거나, 주원료 또는 용도 등을 상표에 부각시키려는 업계의 공통된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 결과적으로는 같은 제품에 유사상표의 등록을 양산하게 되어 독창적 브랜드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약업자 사이에는 상표권 분쟁의 발미가 되고, 수요자에게는 상품출처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김상묵 심사관은 치열한 경쟁으로 품질이 평준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상품의 장기적 차별화는 결국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제약업계도 종래의 안이한 브랜드 선택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이미지에 맞는 독창적이고 강력한 브랜드를 개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 ■ 암의 원인인 흡연, 음주, 인슐린저항성 등이 암환자의 예후(prognosis)에도 치명적

- 흡연, 음주, 인슐린저항성이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치료 경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 삶의질향상연구과 윤영호, 박상민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받은 901,979명의 한국남성 중 암으로 진단된 14,578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 음주, 당뇨 등이 암이 걸린 이후에도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연구결과 암진단 전에 하루 1갑 이상 흡연을 하던 암환자는 비흡연 암환자에 비하여 사망위험이 31%나 높았다. 특히, 흡연력이 있는 폐암, 간암, 췌장암 환자는 비흡연 암환자에 비해 약 40~75%까지 사망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암 진단 전에 음주량이 많았던 두경부암, 식도암, 간암 환자는 비음주 암환자에 비하여 사망률이 25~85%나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암 진단 전에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병을 가지고 있던 암환자 역시 이들 질환이 없었던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암 진단 전에 공복시 혈당이 126mg/dL 이상이었던 암환자는 정상 혈당인 환자에 비하여 사망위험이 38%나 높았으며, 특히 두경부암, 위암, 폐암 환자는 정상 혈당 환자에 비해 약 50%정도 사망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있었던 위암, 폐암, 대장암 환자도 정상 혈압인 환자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게 조사됐다.

- 비만이 유방암이나 대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두경부암이나 식도암 환자의 경우 오히려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환자의 체중이 암종별로 암환자의 예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상민 연구팀은 “모든 암환자에게 금연과 절주를 권유해야 하며, 혈당과 고혈압 여부를 체크하여 전문가의 상담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비만 및 영양상담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연구는 11월 1일자 세계적인 암권위지인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되었는데 1저자: 박상민, 교신저자: 윤영호).

■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71.9%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급여액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다’(‘매우 많다’ 25.6%)는 응답도 응답업체의 88.6%에 달했다.
-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현재 9%)은 ‘5%~7%미만’(37.8%), ‘5%미만’(34.6%), ‘7%~9%미만’(22.2%), ‘9%~11%미만’(5.1%), ‘11%~13%미만’(0.3%)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현재 60%)과 관련,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으로 과거 평균소득의 40%~50%미만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55%미만(23.0%), 55%~60%미만(15.3%), 60%이상(14.8%), 40%미만(9.4%)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을 지적한 기업이 35.3%로 가장 많았고, ‘소득과약 미흡’(28.4%), ‘강제징수’(24.8%), ‘세대 간 갈등’(6.4%), ‘홍보부족’(5.1%) 등을 응답했다. 기금운용과 관련, 기업들의 62.0%는 민간주도 ‘자산운용위원회’, ‘민간투자회사’ 신설방안(41.5%) 또는 ‘운용위원을 민간대표자만으로 구성하는 방안’(20.5%) 등 민간주도의 기금운용을 지지하고 있었다.
- 한편, 65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83.6%로 ‘반대의견’(16.4%)을 압도했다. 찬성기업(1,2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급여액을 문의한 결과, ‘월16만원~20만원 미만’(28.5%), ‘월20만원 이상’(26.7%), ‘월12만원~16만원 미만’(17.2%) 순으로 나타났다.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징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업체 중 14.7%만이 반대했고, 85.3%는 통합에 찬성했다. ‘찬성기업’을 대상으로 통합방식에 관

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59.9%),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과약에 주력해야 한다’(21.1%),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등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2.8%),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4대 보험의 과세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6.2%)는 응답을 제시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신고센터 운영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신고 및 건의 센터를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신고 및 건의 사항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조례, 규칙 포함), 지침, 관행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 정책 아이디어 등으로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으로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방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 한국인의 뇌졸중 인식도 조사 결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뇌질환팀과 고려대 의대 정신과 신경과 연구팀은 “한국 노인 중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선호하는 그룹간의 뇌졸중 인식도 차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인 “비엠씨 퍼블릭 헬스(BMC Public Health)”에 연구결과를 발표였다.
-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뇌졸중 인식도 조사연구의 분석 결과, 뇌졸중에 대한 공공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안산지역사회노인코호트」에 참여하는 2,76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뇌졸중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44.8%만이 뇌졸중이 뇌혈관성 질환임을 알고 있었으며, 정확한 뇌졸중 전구증상을 2개 이상 알고 있는 노인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 뇌졸중 치료방법으로 58.7%가 서양의학을, 41.3%가 한의학을 선호하였다.
- 뇌졸중에 관한 정보 습득은 TV 및 라디오 방송(40.3%), 가족 및 친지(14.3%), 신문(6.4%), 의료기관(5.6%), 인터넷(0.1%) 등으로 나타나 노인대상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방송이며 인터넷 활용은 거의 효과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뇌졸중에 대한 노인의 인식도 및 정보습득의 수단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뇌졸중의 효과적인 예방·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 담은 '의료이용가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在庸)은 가입자들이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의료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의료이용가이드』를 제작(20만부)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 『의료이용가이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기본정보와 올바른 의료이용방법 등 보장성 강화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의료이용가이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익한 정보서로서 기대된다.
- 공단은 전지사 민원실과 대형병원 내 '건강보험상담센터' 방문자, 건강부스 등 행사 참여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소비자 단체에도 배포하여 각종 캠페인시 공동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인터넷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홈페이지(www.withall.or.kr)
 △ 우 편 :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본관 4층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지원단
 △ 방 문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출구 50m지점
 현대빌딩 본관 4층(☎(02) 2100-8842~7)
 △ 팩 스 : (02) 2100-6910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숙원 '쉼터' 개소 -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자리 마련 -

-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6일(월), 서울 중구 봉래동(서울역 부근)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설립된 본 쉼터는 사단법인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방거주 환자는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시 숙박을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쉼터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 희귀·난치성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인, 발병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현재 국내에는 50만여 명의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http://kord.or.kr/) 참고

■■■ "한센인 차별 편견 해소작전 MBC라디오와 함께 펼친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센병, 한센인에 대한 편견 불식을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공중파 방송 MBC와 함께 하기로 했다.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과 무지를 없애기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MBC 라디오를 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1개월간 방송하기로 하였다.
- 사회에서 소외된 한센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되어 있고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화되고 있어, 실태개선을 홍보 하고자 '한센병 바로 알리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한센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웃으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 방송 시간대를 보면 수도권은 MBC라디오 11시뉴스, 12:30분 싱글빙글쇼 프로그램 진행전후에 송출되고
 - 전북권은 아침 8:30분 라디오 동의보감, 저녁 6:30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 광주권은 아침 7시뉴스, 오전 10:00 여성시대, 저녁 8시 최양락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부산과 대구권은 오전 11:00뉴스, 9:00 여성시대, 저녁 7시 추억의 노래세상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라디오 광고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센병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및 한센인의 인권회복을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계도하기로 했다.

■■■ "노인정책, 노인들이 직접 평가한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해 '어르신 모니터요원'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모집한다.
- 내년 1년동안 활동하게 될 어르신 모니터요원은 65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운영자는 선발시 우대 받는다.
- 어르신 모니터요원은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의 노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게 된다.
- 지원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precap.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